

신라의 순수비

류정한 | 신라실 108호 | 18:00~18:30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각축을 벌이며 국가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강 유역은 중국과의 교섭은 물론이거니와, 한반도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각국은 한강 유역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백제에 비하여 왕실의 집권체제 확립이 늦었던 신라는 6세기 전반이 되어서야 율령을 반포하고, 전제왕권을 확립하게 된다. 이후 즉위한 진흥왕(재위 540~576)은 적극적으로 대외 정복에 나서 신라의 영토를 비약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물 중 신라 진흥왕 순수비(국보/555년 건립 추정)가 유명하다.

순수巡狩는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정치적 행위로서, 진흥왕은 새롭게 영토에 편입된 지역을 직접 찾아 신라의 국세를 과시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6세기 중반 세워진 순수비들은 기존 영토가 아닌 정복 전쟁의 결과로 획득한 새 영토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일반적 순수가 아닌 국경을 직접 살피거나, 국경을 개척한 사실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정치적 목적과 연관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순수비·척경비는 창녕 척경비(국보/561년 건립), 함흥 마운령·황초령 순수비(568년 건립) 등이 있다. 비의 내용은 왕의 지방 방문, 왕의 업적 찬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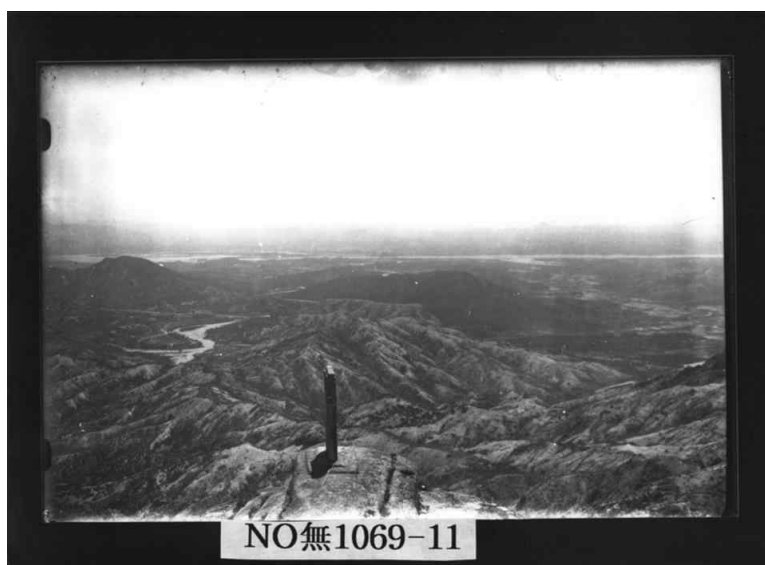


그림1. 진흥왕 순수비 전경(유리건판)



그림2. 진흥왕 순수비(국보 제3호)

소장품의 안전한 포장과 보관

박진우 | 역사의 길 원랑선사탐비 앞 | 18:00~18:30

박물관 소장품이 전시되기 위해서는 수장고에서 전시실까지 가깝게는 수십 m에서 멀게는 지방이나 외국의 어느 박물관까지 수천 km를 옮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격으로부터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포장’을 하게 된다.

포장할 때 중요한 점은 재질, 모양, 상태가 각각인 소장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양을 만들어 충격을 분산시켜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포장 재료와 방법은 박물관이나 나라(國家)별로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지韓紙와 솜포대기(솜을 한지로 감싸 만든 것)로 소장품을 감싸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폴리에틸렌 폼을 소장품의 모양처럼 올려내고 그 안에 소장품을 넣는 방법도 사용한다. 최근에는 금속이나 종이 등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포장 재료와 방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전시되지 않는 소장품들은 ‘수장고收藏庫’라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다. 박물관 수장고는 소장품의 재질材質별로 보관하기 위해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재질에 따라 보관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종이, 섬유, 나무와 같은 재질은 습도를 높여주어야 하고 금속 재질의 것들은 습도를 낮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

수장고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으며 많은 보안 장치들을 거쳐야 하는 등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이 모두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해 드러나지 않게 행해진 다.



그림1. 솜포대기 포장



그림2. 수장고

테마전 “옛 중국인의 생활과 공예품” (1)

- 신화 · 고사와 의례儀禮 이야기(청동예기) -

박정은 | 테마전시실 115호 | 19:00~19:30

고대 중국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게 기원할 때 청동 그릇을 사용하였다. 그중 가장 중요했던 정鼎(세발솥)은 육류를 삶거나 끓이는 데 쓰였다. 신화에 따르면 하夏(약 기원전 2000~1600년)의 우왕禹王은 중국 전체를 나눈 9개의 주, 곧 구주九州의 제후들이 바친 구리로 9개의 거대한 정을 만들었다. 이후 9정은 천자天子가 가지는 권력의 상징으로서 패권을 노리는 자에게 야망의 대상이 되었다. 기원전 255년 진秦의 소왕昭王은 주周(기원전 1046~256)를 치고 수도 낙양洛陽에서 9정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진의 수도 함양咸陽으로 9정을 옮기다가 하나를 사수泗水에 빠뜨렸다고 전한다.

오른쪽에 있는 무씨사武氏社 화상석 畫像石 탑본은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秦始皇(기원전 259~210)이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수에 빠진 정鼎을 건지려 했으나 얻지 못했던 고사를 묘사했다. 아래쪽에는 배에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장대로 정을 밀어올리고 그 좌우에 줄지어 선 신하들이 줄을 당겨 정을 끌어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정 안에서 용龍이 나와 줄을 끊으려 하고 있어 결국 진시황이 정을 건져내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9정은 중국 고대 왕조의 천자天子에게 정통성과 천명天命의 상징으로서 ‘하늘의 뜻’을 의미하는 상서로운 물건이었다.



그림1. <무씨사 화상석 탑본>, 한, 산둥 자상현.



그림2. <청동예기(鼎,簋,觚,壺,尊)>, 상~주.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 (8)

권혜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특별전 “미술 속 도시, 도시 속 미술”은 조선시대(1392~1897) 후기부터 1930년대까지 다양한 분야의 우리 미술을 그 ‘미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는 전시이다. 조선 시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였던 한양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 현상을 보인다. 밖으로는 서양 학문과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안에서는 상업의 발달과 급속한 인구의 증가로 상업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었다. 도시만의 문화가 나타났고, 미술의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미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미술가들은 새로운 생각, 취향, 시장의 수요 등 달라지는 환경에 반응하고 변화를 모색해 나갔다.

전시는 크게 도시의 경관, 도시의 사람들, 도시의 취향과 미의식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미술이 또다시 큰 폭으로 변화하면서 현재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이후 서울은 익숙한 옛 것과 낯선 것이 충돌하며 급변하는 공간이었다. 우울한 식민지 현실 속에서 미술가들은 정체성과 전통을 고민하고 미술로 승화시켜나갔다. 조선시대 그림에서 20세기 초 서양유화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익숙한 풍경을 배경으로, 낯선 현재가 뒤섞인 근대 도시 경관이 펼쳐진 모습은 그러한 근대의 고민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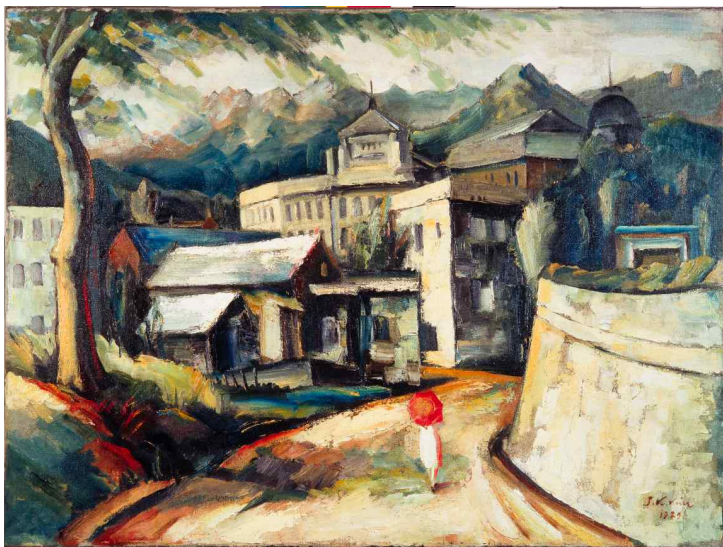


그림1. 김주경 金周經(1902~1981),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 1927년,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